

# 韓國建設業界의 現況과 展望

大韓建設協會

調查課長 林炳斗

## < 內 容 >

- 一. 序 言
- 二. 建設業界와 協會의 沿革
- 三. 建設業界의 現況
- 四. 建設業界의 隘路
- 五. 建設業界의 展望

## 一. 序 言

現下 우리나라 建設業界의 實情과 앞으로의 展望을 條理있게 分析 評價한다는 것은 專門的 企業理論과 正確한 資料와 計數에 依하여 論述되어야 하기 때문에 筆者의 能力으로는 甚찬 作業이 된다.

다만 建設業界의 概略的인 來歴과 現在의 動向 및 그 役割 그리고 建設業界가 當面하고 있는 隘路點 또는 이에 對한 建設業界의 展望에 對하여 言及코져 한다.

첫째 建設業은 모든 産業과 文化의 基盤을 造成하며 또 그 構造를 現代化하는 作業을 擔當한다.

自然資源을 開發保存하고 그를 利用하는 施設을 建造하며 天災地變 復舊防災에 앞장서고 있다.

第1次 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에 따른 國家建設事業의 規模인 擴大와 더불어 建設業界의 工事量은 해마다 增加一路에 있다.

建設事業은 모든 基幹産業과 其他 諸事業發展의 前提로서 國家經濟發展의 基礎的 役割을 하고 있으므로 建設業은 他産業間에 깊은

聯関을 가지며 또한 国民生活과 國家經濟 모든 分野와도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即 一次産業인 農林漁業 分野에 있어서는 糧穀增産을 目的으로 하는 水利安全畚確保를 爲하여 水利施設 全天候開發을 爲한 揚水場 設置等 土地改良事業과 漁港保護 現代化를 爲한 防波提 構築等を 列挙할 수 있으며 第2次産業에 있어서는 各種 製造工場의 施設을 비롯하여 炭座油田開發의 坑道工事等を 들수 있다. 建設業으로서 第一, 二 寄与度가 큰 第三次 産業에 있어서는 電源開發을 爲한 水火力發電所 塹 그리고 雇傭效果가 높은 國土建設事業의 橋梁, 道路 港湾工事를 例示할 수 있다.

이中 都市計劃事業과 住宅建設事業은 오로지 建設業者만이 그 施設을 都給할 수 있는 事業이며 國土의 動脈인 鐵道建設 社會福祉 施設 및 文化敎育施設等 그 말은바 領域은 實로 尨大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한편 刮目할 만한 事實은 近間 우리나라 建設業界의 海外進出과 建設軍納狀況이다.

65年度 國內建設軍納實情은 1,200萬弗이며 同建設軍納工事의 領域은 日本과 沖繩等地에 巨하고 있다. 國內屈指의 五大建設業체가 泰國과 越南等地에 進出하여 66年 5月 現在 建設工事契約高約 1,300萬弗의 實情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65年度 全國輸出 實績 17,500萬弗에 對比 18.4%를 차지하는 畧이 된다.

이렇듯 韓國의 建設業界는 海外로 飛躍하여 그 施工能力을 誇示 하므로써 巴야으로 우리 建設業界가 國際水準에 到達하고 있어 亞細亞 諸友邦은 이를 높이 評價하고 있는 바이다.

이 結果 比律賓에서도 大規模工事に 對한 入札參加通知가 來到하

고 있으며 「말테이지아」도 이와 같은 機微를 보이고 있다.

한편 亞細亞地域의 建設業者의 國際聯合體의 會員으로서 每年 定期的으로 開催되는 亞細亞 및 西太平洋地區 建設業者協會 國際聯合會 (IFAWPCA)에 우리나라 建設業界 代表團이 參加하여 韓國 建設業界의 威信을 높이고 民間外交로서 多大한 貢獻을 하고 있음은 同聯合會 五次 서울大會와 六次 香港大會에서의 韓國代表團의 活躍으로서 보여 주고 남음이 있었다.

然이나 建設業界는 이와 같은 外觀的 「建設 boom」에도 不拘하고 實은 여러가지 隘路와 苦表이 있는 것이다.

그 具體的인 例로 設計基準 契約條件 資金面 租稅面 등에 있어 他産業에 比해 훨씬 不利한 位置에 있어 外富內貧의 業界의 苦痛은 莫甚한바 있다.

## 二. 建設業界와 協會의 沿革

1945年 8月 光復을 맞은 後 1947年 5月 大韓土建協會로 發足되기 까지 國內 建設業界는 이렇다할 活躍相을 보이지 못하였고 1950年 6月 25日 北傀의 不法南侵으로 因하여 釜山으로 本部를 移轉한 協會는 全國 建設業者 約 130名 이中 正會員은 겨우 70名에 不過였다.

1953年 서울에 歸還한 協會는 正會員 148名으로 會員業體의 顯著한 增加를 보이고 한편 戰災復旧를 爲한 建設事業도 活潑하게 되었다. 이지음 全國 建設業者는 約 370名으로 急增되었고 이때 부터 建設業界는 그 機能과 規模가 擴大되었을 뿐만 아니라 近代化의 轉機를 이루었으며 高度化된 外國 建設技術導入도 推進되었다.

이에 政府는 1958年 3月11日 建設業法을 公布하고 建設業者의 免許制度와 等級制를 實施하고 裝備의 登錄等 여러모로 建設業界에 對하여 行政的으로 整備하기에 이르렀다.

當時 建設工事量은 增加하고 있기는 했으나 이에 比하여 勿論 1,600餘業체라는 業체의 激增과 亂立相을 이루어 業界는 共存할 수 없는 狀態에 놓여졌었다.

1958年 政府는 다시 免許의 等級制를 廢止하고 1961년에 이르러는 建設業에 包含되었던 專門 業種인 電氣工事は 建設業으로 부터 分離 獨立시키는 措置를 取하였으나 業界는 依然 1,500名에 가까운 業체가 蕃비고 있었다.

5.16 革命後 政府는 建設業界 育成策의 革新的 措置로서 免許基準을 強化하여 全國建設業체를 5百餘名으로 廢合整備하였다.

그러나 其後 다시 增加現象을 나타내어 66年 6月 現在 592業체에 達하고 있다.

全國 各市道 및 業種別 建設業체分布狀況은 다음과 같다.

建設業免許狀況表

1966.6.1, 現在

業種別 道別	一般工事				特殊工事				合計 業許 計	業 体 數	
	土建	土木	建築	計	道鋪	鐵鋼橋索道	港浚	計			
서울	227	25	60	312	20	3	1	1	25	337	312
京畿	14	4	3	21	1	2	1		4	25	22
忠北	18	5	3	26						26	26
忠南	28	7	3	38						38	38
全北	14	9	5	28						28	28
全南	22	10	4	36						36	36
全慶	35	5	3	43						43	43
慶南	11	7	1	19						19	19
釜山	33	5	2	40		2			2	42	40
江原	16	4	1	21						21	21
濟州	7			7						7	7
計	425	81	85	591	21	7	2	1	31	622	592

### 三. 建設業界의 現況

#### <年度別 工事都給狀況>

建設業界의 지난 3年間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 國營企業體, 民間外國機關으로 부터 發注된 工事都給狀況을 살펴 보면 63年度 14,784,769,600원, 64年度 19,270,453,034원, 65年度 23,437,632,359원으로 해마다 그 都給額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이는 國家建設事業과 民間事業의 施設投資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한편 65~66年初에 걸쳐 泰國, 越南, 等地에 進出한 國內建設業者들이 都給한 海外工事 總都給額은 1,260餘萬弗로 圓貨로 計上하면 約 34億2千8百餘萬圓이라는 龐大한 額數에 達하고 있다. 年度別 工事都給狀況은 다음과 같다.

年度別工事都給狀況 (契約)

年度	國內都給	建設軍油納	計
63	14,784,769,600원	1,223,175,304원	16,007,944,904원
64	19,270,453,034	3,270,452,846	22,540,905,880
65	19,971,984,154	3,465,648,205	23,437,632,359

※ 66年 5月 現在 海外工事\$ 12,606,617 (₩3,428,999,824)

#### <納稅面으로 본 建設業界와 他産業>

財務部集計에 依한 64年度 法人稅納付狀況을 보면 全國納稅実績 40餘億圓에 對하여 建設業界가 納付한 法人稅額은 거의 10分1에 該當하는 3億圓에 達하고 있으며 源泉徵收分만으로 各産業分野

別로 大分하여 보면 製造業 2億3千, 建設業 1億1千, 水産業 千萬원 飲業 100萬원, 其他 11億3千으로 이를 比率로 나타내면 建設業은 그 稅源의 對象이 広範한 製造業과 對比할때 50%나 되는 莫重한 課稅를 負擔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으로 보아 建設業이 차지하는 諸稅納付比率이 얼마나 높은가를 斟酌할 수 있다.

#### <雇傭員 就業狀況>

66年 5月 現在 建設業法에 依한 全國 免許技術者 8,967名中 6,746名을 免許建設業체에 就業시키고 있는 建設業界는 65年度 勞務者 延動員數는 年間 3千萬名을 突破하였고 600餘業체에 固定 就業人員만도 23,675名으로 雇傭增大라는 國家施策에 寄與하는바 크다.

#### <建設資材消費狀況>

協會가 集計한 64年度 主要建設資材인 세멘트와 鉄筋 木材의 消費狀況을 보면 세멘트가 64年 全國消費量 約 百萬餘屯에 對하여 全國建設業界가 消費한 量은 約 60萬屯으로 消費率 60%를 차지하고 있다.

鉄筋은 同年 全國消費量 12萬屯에 對하여 6萬2千屯으로 51% 木材는 6千萬才의 消費를 示顯하고 있다.

이로써 主要建設資材의 主된 需要者는 建設業界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 <建設業界의 經營狀況>

이렇듯 建設業界는 每年度 200億 以上の 政府나 民間의 重要

建設事業을 遂行함으로써 우리나라 産業發展의 基盤을 構築하는 重要産業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少數의 業體를 除外하고는 資本의 零細性과 前近代的인 經營狀態를 脱皮치 못하고 있는 現象이다.

業界가 保有하고 있는 運轉資本中 80% 以上이 負債인바 그 負債中 68%를 市中의 高利私債에 依存하고 있어 中小業體는 每年度 莫大한 金利의 負擔과 雪上加霜으로 建設工事 盛需期에 建設資材價格의 暴勝으로 赤字經營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로 外富內貧의 實情 그대로인 것이다.

(A) 工事用資金 및 負債依存率

1965. 12. 31

科目	金額	比率	科目	金額	比率
当座資産	3,238,105,000	48%	負債	5,702,746,000	84.4%
実査資産	2,243,862,000	33.2%	自己資本	1,054,190,000	15.6%
其他	1,268,969,000	18.8%			
合計	6,756,936,000	100%	合計	6,756,936,000	100%

(B) 負債構成比率表

1965. 12. 31

負債先別			負債固定性別		
科目	金額	構成比率	科目	金額	構成比率
銀行負債	1,845,252,000	32.3%	流動負債	3,841,094,000	67.4%
私債, 其他	3,857,504,000	67.7%	固定負債	1,861,652,000	32.6%
合計	5,702,746,000	100%	合計	5,702,746,000	100%

#### 四. 建設業界의 隘路

< 建設業界 都給領域에 對하여 >

現下 建設業界 都給領域에 對하여는 建設業法으로 그 都給範圍가 規定되어 있다.

即 50 萬圓 以上 建設工事に 對하여는 建設業法에 依한 建設業 免許所持者에 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法的制限規定에도 不拘하고 直營形態로 施工되는 大規模의 工事が 許多하며 또한 國營企業체와 社団法人 性格의 公共企業체에 까지 建設業 免許를 賦與하므로써 民間私企業체인 免許建設業者의 都給領域이 漸次 侵蝕되고 있다.

둘째는 國內에서 發注되는 外國機關工事的 B A 政策 問題이다. 高額工事に 對하여는 拳皆가 外國建設業者가 元都給하고 國內 建設業者는 그 下都給을 맡고 있으며 또한 國內 建設資材가 當該工事に 供給되고 있는 外國資材에 比해 遜色이 없고 價格이 低廉함에도 不拘하고 特定地域에서 複雜한 手續과 長時日에 걸쳐 輸入해야 할 하는 苦衷을 겪고 있다.

< 物價變動에 따른 建設業界의 損失에 對하여 >

韓銀 都売物價指數와 建設協會 建設資材勞賃時勢調査에 依하여 65年度 建設業界 總都給額에 對한 工事施工 및 業體管理 運營上의 損害狀況을 64年 12月을 發注工事的 設計時點으로 하여 月別 및 工事內識別로 推算하여 보았다.

即 單位體工事的 構成要素를 시멘트 16%, 鉄材 8%, 木材 13% 其他資材 13%, 勞賃 27%, 現場管理費 利益金 其他 諸費 23%, 計 100%로 月別 物價變動率에 依해 算出해 보면



26億9千餘萬원에 達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都給工事金額에 追加策定되어야 할 것을 業界가 損害를 보고 犧牲을 하여가며 工事を 遂行하여온 金額을 推算한 것이 된다。

<設計基準의 非現實性에 對하여>

△ 建設勞賃

建設協會서 調査된바 66年 1月 現在 市中 普通人夫의 勞賃이 200원 美匠工이 450원, 鉄筋工이 380원, 木手が 420원으로 되어 있으나 設計面에 反映되는 發注處의 單價基準을 보면 普通人夫 170~175원 美匠工 350~360원 鉄筋工 340~350원, 木手 370~380원 等으로 되어 있다。

이는 現時價 보다 約 10~20%의 低廉한 價格으로 計上되고 있는 셈이다。

△ 主要建設資材

시멘트와 鉄筋 木材를 보면 66年 1月 現在 各發注處마다 多少의 差異가 있는 것으로 市中價格 그대로 反映시킨 곳도 있으나 大部分의 發注處는 約 5~10%의 低廉한 價格으로 算定하고 있다

同建設資材에 있어서는 官給品이 많으나 그 供給을 工程에 맞추어 주지 않을 때가 許多할뿐더러 每年 工事盛需期인 春季를 접어들면 購得難과 價格昂騰으로 業界는 苦痛을 겪어야만 하고 그렇다고 工事を 中斷할 수 없어 高價로 資材를 購入하여 工事を 繼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業界의 資金難과 施工上의 苦衷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것이다。

△ 雜費率에 對하여

財務部가 1955年 以來 制定施行하고 있는 單位體工事의 雜費率은 資材와 勞賃의 合計額에 對한 30%를 財理 2208호로 規定하고 있으나 이는 總工事費에 對하여 23.1%에 不過한 낮은 比率이 되는 것이다. 이中에는 諸稅, 事務費, 機械消耗費, 通信費, 交通費, 附帶材料費, 利潤 및 其他 雜費等이 包含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發注機關에 따라서는 17%까지 低廉한 比率로 策定하고 있어 이러한 工事を 都給하는 業體는 赤字를 免치 못할 것이며 發注機關도 工事의 質的 保障을 期待하기 難할 것이다

△ 품셈에 對하여

現在 使用되고 있는 品셈은 各企業官署마다 다르다. 厚한 곳이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이 薄한데도 있다.

같은 國庫豫算을 執行하면서 이렇듯 國內 品셈이 發注機關마다 다르다 함은 施工處의 特殊事情과 工事に 따라 特異한 事情도 있겠지만 理解하기 困難하다. 品셈의 差異에서 오는 設計上의 金額差異는 莫大하다. 品셈의 標準化 二리고 現實에 符合되도록 統一補完하여 設計面에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契約制度의 不公平性>

契約制度에 있어서는 名實共히 契約當事者間에 雙務契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建設業法上에도 強調되고 있다. 어디까지나 契約當事者는 對等한 立場에서 對價的인 內容을 가지고 相互 契約을 履行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 政府의 施設工事契約一般條件은 發注機關만이 有利한 立場에 서고 業者側은 不利한 片務的 契約條件을 適用받고 있어

64, 65 兩年度에 걸쳐 建設協會의 改正建議에 依하여 部分的인 是正을 보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重要한 部分은 그대로 남아 있다.

例를 들면 天災地變 不可抗力의 損害를 입었을 時의 工事金額과 工事內容의 增減調整에 關한 具體的인 條項이라던가 夜間作業을 하였을 때 追加費用의 請求, 物價變動에 依한 契約金額과 工事內容의 增減 等等 그 問題點이 남아 있다.

## 五. 建設業界의 興望

叙上 建設業界 現況과 隘路點等에 關하여 綜合的으로 그 改善策을 列挙해 보면 첫째 建設業界 都給領域의 擴大와 그 保障策으로서 直營으로 發注되는 工事로서 公共性을 띤 工事は 大小를 莫論하고 免許建設業者만이 都給할 수 있도록 法的措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卽 病院, 敎會, 市場, 浴場, 호텔 等 모든 民間發注工事도 免許建設業者로 하여금 施工케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는 現存業者의 保護育성과 業界亂立을 防止하기 爲하여 新規免許를 抑制하는 同時에 國營企業體等에 對한 建設業免許發給을 止揚하여 建設業領域의 侵蝕을 事前 防止하는 措置가 懇切하다. 이는 現行 建設業法上에 反映되어 法的으로 規制되어야 할 큰 課題의 하나이다.

다음은 海外工事都給을 爲한 建設業體 海外進出에 對한 支援策과 建設軍納上 BA 政策 緩和策에 對한 問題이다.

泰國, 越南等 海外諸國에서 韓國建設業界와 國家의 各層를 걸고 일하는 建設業者들에 對한 支援策으로 政府에서는 그 方案이 經濟長官會議에서 決定되어 入札 및 契約保證業務의 簡素化와 重機械輸入에의 長期延払方式 免稅 融資等에 亙하여 支援策이 樹立되고 있으

나 建設軍納上의 B.A 政策에 對하여는 國內建設業者의 施工能力의 優秀性이 海外에서도 認定되고 있는 이지음 아직도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다。 即 外國建設業者와 同一한 條件下에 入札權이 賦與되도록 積極的인 政府의 뒷받침이 있기를 業界는 要望하고 있다。 한편 工事資材供給에 있어서도 國內生産品인 建材가 優秀한 것이 많으며 價格도 低廉하고 有利한 點이 많음에도 如前히 特定地域에서 輸入하고 있는바 이로 因하여 軍納施工業者는 資材鑑定의 機會가 없을뿐 아니라 到着物品의 規模蹉跌 破損等의 欠陥을 補填할 길도 없고 資材輸入에 長期日을 要하여 工程을 遷延시키는등 여러가지로 損失을 보는 實情이다。

國內工事に 있어서 物價變動과 建設資材購得難 그리고 適期供給의 不円滑로 工事施工上 支障을 招來하는 등 業界가 損害를 보게 되는 境遇가 많은데 이에 對하여는 施設工事契約 一般條件의 改正으로 좀더 具體的인 補償對策을 保障 받도록 制度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設計單價 現實化問題는 于先 物價 騰落에 隨伴하여 即刻的으로 「에스카레다」式 單價策定과 設計變更으로 工事を 量的으로 增減調整할 수 있는 施策이 마땅 되었으면 한다。

業界의 資金難緩和問題 이것은 業界의 私債依存度를 減縮하고 都給業者로 하여금 施工 意慾을 增進하는 工事의 質的向上을 期할 수 있도록 現行豫算會計法과 建設共濟組合法을 改正하여 先進國들과 같이 工事代金 先金払制度를 創設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對하여는 建設協會가 同法改正建議案을 政府에 提出하고 그의 實現을 促求하고 있다。

建設業界의 實情은 以上과 같거니와 業界는 스스로 自覺하여야 할 岐点에 서 있다고 볼수 있다.

첫째 現在 盛行되고 있는 「덤핑」入札은 業者自身の 自減行爲일 뿐 아니라 発注者로 하여금 現實的인 設計基準과 雜費率 策定에 의 疑惑을 가적다 주는 要素가 될 것이다。 한편 經營面에서도 徹底한 企業分析으로 業体運營의 合理化를 期하고 施工管理에도 致密한 「프랜」이 앞서야 健全한 發展과 繁榮을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紙面關係로 「타이틀」만 늘어 놓게 되어 아쉬움을 禁치 못한채 現下建設業界의 片貌를 略述함에 代하고자 한다。